

6월 01라네

달의 추억

무디게도 티디게도

지난

우리들의 시간표

Mon	Tue	Wed	Thu	Fri	SAT	
		일찍 일어나기				5:30
	-기상 -아침 먹고 출근 준비	허벌 드링크 만들기	-기상 -아침 먹고 출근 준비			6:30
		허벌 드링크 나눠주기 (루나와 병원)				7:30
물주기 (비오면 안 줘요)						8:30
-클래스 준비 -잡무	잡무	-클래스 준비 -잡무	잡무	-클래스 준비 -잡무	-운동 -클래스 참여	오전
점심 먹고 쉬어요						12:30~1:30
디고롤라 클래스	-허벌티 준비 -잡무	-클래스 준비 -잡무	-클래스 준비	칠드런 클럽	자유시간	오후
저녁식사				스포큰 잉글리시		6:00
이사회 미팅		유스클럽	한국어 교실	클래스		7:30
-팀 미팅 -휴식						

6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물주기	
					350ppm 준비 화단 준비	배드민턴, 탁구
					스포큰 잉글리시 인기	'나야나 아픔' 짜두레 음악선생님 결혼파티
3	4	5	6	7	8	9
루시루 할머니 집 방문 (닐미니, 나아나, 칼푸나)	물주기					350ppm 캠페인 in 콜롬보 mc(대형상가)
	단살 with 유스클럽	350ppm	허벌드링크	코리안 클래스 오픈	모라투와 350ppm 알 리기	With 유스클럽, 칠드 런클럽, 보드멤버
유스클럽과 스팀보트 식사	-포토존, -손수건 제작 -350 마을 만들 기 그림 완성	-콜롬보 mc 방문 허가 -나야나 피부 문제 병원 방문	스리랑카 장례식 참석	짜군 컴퓨터 수리점 TT		
10	11	12	13	14	15	16
콜롬보 여행 (칼푸나, 나아나, 켈룸)	물주기					Flag Day! 하루 종일 저금통 들고 다니기 (기금행사)
	디고롤라 클래스 (디고롤라 방문)	Flag Day 준비	쌈밭 아야 성당 방문	한국어 수업	칠드런 클럽 스포큰 잉글리시 클래스	
	보드미팅 음식 문제로 시끌	저금통 만들기	저금통 완성	100일 파티 중간점검 초대장만들	유스멤버 미란 한국어 과외 시작	콜롬보 여행 켈룸은 집으로
17	18	19	20	21	22	23
-아침교회 방문 with 니할	중간점검			휴일	칠드런 클럽 유스클럽	-수업, 체육활동
	집 청소	허벌 드링크	자유시간			
-루시루 오션드와 아띠 집에서 점심	콜롬보 공항 마중	중간점검	한국관 식사 후 배웅 T	코리안 클래스 (휴일이지만 출근)	칠드런 클럽 (모라투와 ymca 사무총장님 진행)	회의, 휴식
24	25	26	27	28	29	30
	물주기					
각자 휴식& 구경	디고롤라 클래스 (오랜만에 수업)	아쇼커와 일정 미팅	허벌드링크	한국어 수업	-칠드런 클럽 -스포큰 잉글리시 수업	-수업, 체육활동
Week report! 만들기	우리의 여행은 어디로?	장보기 with 쌈밭아야	제프나 여행 날짜 정해짐	박물관 방문	저녁식사 with 수데시 아쇼커의 마지막 칠드런 클럽 T	회의 휴식

이곳은 6월의 랑카입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린 때론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행복하고 더 웃으면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칼푼나 관점에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우리팀원들이 그리고 나, 우리 라온아띠 기 모두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상처받고 상처를 이겨내고 겪어내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랑카 이곳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하호호 오늘도 히나웨나와(웃다).

랑카, 중간점검

한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2012. 6. 18 밤11시 55분 싱가포르 비행기로 반가운 실장님과 간사님께서 오셨다.
우리 아띠들과 랑카팀 YMCA 니할따따, 삼빳아이야, 아쇼카 아이야 총 출동!!



2012. 6. 19 이충재 실장님과 이희남 간사님의 환영회와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하고,
우리들의 중간점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두근두근 아띠들의 중간점검. 짜뚜레 (재범)의 우리 중간점검 발표와 나야나 (수경)영상을 보면서 발표 한 후 우리들의 개별 감상문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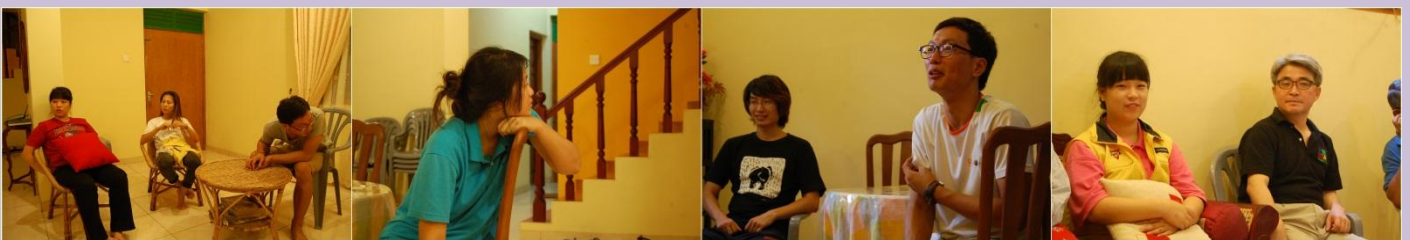




맛있는 밥을 다 먹고, 다들 단체 사진 찰각.
다 같이 YMCA 앞에서 찰각찰각!!!! 히히히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체크하러 돌아다니기.
너무나도 이쁜 우리 디고롤라 아이들과 잠시 함께 한 '닷마디' 수업.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해주고, 너무 잘 하던 날. 뿌듯했던 날.



우리끼리 신이나게 오랜만에 한국어를 열심히 떠들수 있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모든 보드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들의 1,2일차 중간점검은 끝나고
우리들은 그저 들뜬 마음과
더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시간이었다.



[3일차 중간점검 시작. 우리들의 수요일 프로젝트 허벌드링크 같이 하러가다.]
수요일마다 아침 일찍 병원에서 허벌티 나눠주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실장님께서 묵고 계신 숙소에서 아침식사.
맛있는 음식과 과일이 잔뜩 있던, 그리고 YMCA돌아가기 전 사진 찰칵.



아띠들과 관계자분들과 다 함께 이야기 시작. 그리고 다같이 점심을 먹은 후,
다 같이 Pool 한 판을 신이나게. 한국팀이 랑카팀을 드디어 이기다!!!! 히히



[한국음식점을 찾아가다]

한참을 쉬고 난 뒤에 저녁식사를 하러 콜롬보 식당을 향했다.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실장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로 한국 음식점에 데리고 해주셨다. 우린 무한 감탄과 무한 한국음식 사랑을 느끼고, 아띠들은 신이나게 먹고, 또 먹었다.

AND 우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충재 실장님과 이희남 간사님을 필리핀으로 보내드렸다. 짧고도 길었던 2박 3일 동안 투정 부릴 수도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만남이 좋았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시는 만능 이충재 실장님.



드디어 오신 우리들의 엄마 희남간사님 급작스럽게 랑카로 오셨다.



350ppm ව්‍යාපාර



ස්ඵර්ෂි එක වැසු පසු එයේ
එක ගලවා තබන්න

TURN OFF THE LIGHTS



එක්වරක් පමණක් භාවිතයට
ගත හැකි දෑ හි නිෂ්පාදනය
අවම කරන්න

ORDER APPROPRIATE PRODUCTS



කාමරය තුළ උෂ්ණත්වය
26 ට පවත්වා ගන්න

MAINTAINING THE TEMPERATURE IN THE ROOM AT 26°C



ලේ පිට්ටක් භාවිතා කරන්න

USE RECYCLED PAPER



ලේඩි නිවා දමන්න

TURN OFF THE LIGHTS



කෑම නාස්ති කරන්න එපා

DON'T WASTE FOOD



පොලිතින් බෑන්
පාවිච්චි කරන්න එපා

DO NOT USE POLYETHYLENE BAGS



එක් වරක් පමණක්
භාවිතා කළ කඩදාසි
නැවත පාවිච්චි කිරීමට ගන්න

RECYCLE WASTE

YMCA
MORATUWA

RoanAtti



350ppm Campaign

RoanAtti 7th

In Sri Lanka

350ppm Campaign

RoanAtti 7th

In Sri Lanka

<우리들의 350ppm campaign 활동들>

*3~4월: 350ppm을 설명하는 벽화 (5월 보고서 참고)

*5~6월: Digorolla class와 children's club에서 환경관련 수업 진행>

-북극곰 이야기 창작 후 수업 (5월 보고서 참고)

-북극곰 노래 창작 후 수업 (5월 보고서 참고)

-350campaign에 대한 수업

-살고 싶은 지구, 살기 싫은 지구 그림 그리기 수업

*6월

-포토존 실행: 지구를 살리는 8가지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약속하고 벽화 앞에서 사진 찍기

-아이들에게 나무 모퉁 나누주기

-Digorolla Garden에 나무심기

-Moratuwa 기차역 앞에서 350ppmcampaign을 알리고, 지구를 살리는 8가지 방법 설명

-스리랑카에서 전력소모가 가장 큰 도시에서 대형 쇼핑몰을 찾아가, 건물 안의 유동인구 대

상으로 350ppmcampaign 홍보하고, 지구를 지키는 8가지 방법 중 현재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지 조사함

따르 또 같이,

살고 싶은 지구, 살고 싶지 않은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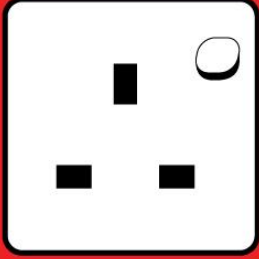
아이고 힘들다

월요일 Digorolla Garden 아이들에게, 종이 두 장을 나눠주고 각각 살고 싶은 지구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지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금요일 Children's Club 아이들에게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 다음 라온아피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각각 개체마다 따로 오려서 장장 전지 4장을 이어붙인 큰 배경에 다시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공장들은 각각의 개성을 띤 채 모여서 공장촌을 형성했고, 아이들이 그린 나무들은 각각의 개성을 띤 채 모여서 숲을 형성했고, 아이들이 그린 구름과 해님들이 모여서 형형색색의 하늘이 형성되었고, 아이들이 그린 길(도로)은 각각의 개성을 띤 채 모여서 길다란 길을 형성하는 식이었지요. 하루 종일 세세한 가위질과 풀칠을 하느라 지쳤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림을 벽면에 붙여 놓자 자기 그림을 여기 저기서 찾아보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ලාඹාදා ක්වී ස්ට්‍රිකා ක්වී ජිහා,

ජිඛුලු ජිකිසි 8කිසි කිසිකිසි ක්වී



සිචිචි එක වැසු පසු පිලගි
එක ගලවා තබන්න

Plug ඔප්පි



එකිවරකි පමණකි භාවිතයට
ගත භැකි දෑ හි තිඡිපාදනස
අවම කිරන්න

ඛ්චිචිචිචි ජාසගි ක්වී



කාමරස තුළ උඡිණතවස
26 ට පවතිවා ගන්න

ඡිඡිඡිඡිඡි



ලේනසුචකි භාවිතා කිරන්න

සනසුකි ජාස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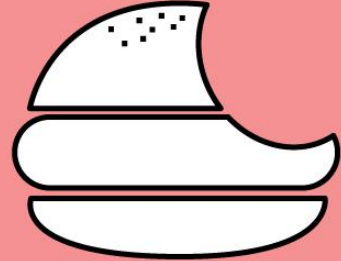
ලාභයක් ඇති ක්‍රියාමාර්ගයක් වන,

පෘථිවි පරිසරය සුරැකි 8 ක්‍රියාමාර්ගය



විදුලි බලය ඉතිරි කර ගැනීම

දැවැන්ත දැව



කැමරා භාවිතයේ අවසන් කිරීම

භාග්‍ය භාවිතයේ අවසන් කිරීම



විදුලි බලය ඉතිරි කර ගැනීම
භාවිතයේ අවසන් කිරීම

විදුලි බලය ඉතිරි කර ගැනී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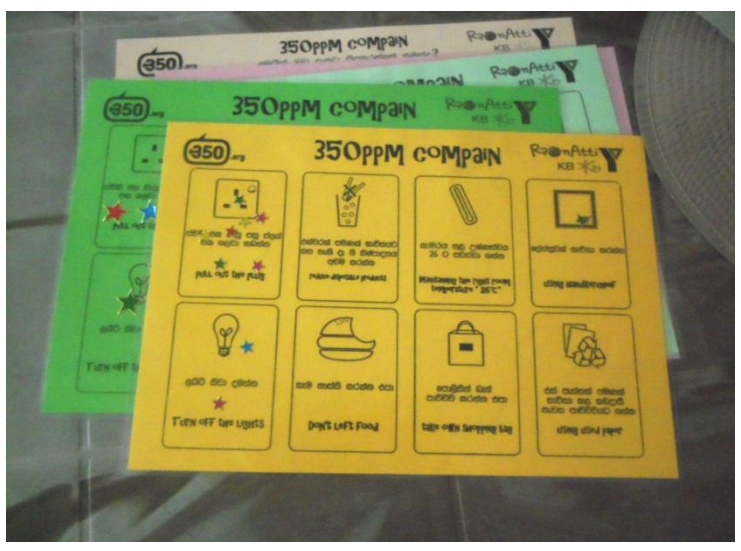


ප්‍රතිචක්‍රණය කිරීමේ ප්‍රමාණය
භාවිතයේ අවසන් කිරීම
නව ප්‍රතිචක්‍රණය කිරීමේ ප්‍රමාණය

විදුලි බලය ඉතිරි කර ගැනීම

ಕಾರ್ನಾಡಿ ಕೆಗಿ ಸ್ವೀಕಾರ್ಕಾ ಟೆಮ್ನಿ ಮನ್ಡನ್,

350campaign ನುನಿವುಲ



지구를 지키는 8가지 약속과 함께,

350campaign 포포진!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Digorolla Garden에 나무심기!



일단 Digorolla Garden의 쓰레기들을 치웁니다!



나무를 심어볼까요?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 모종 나눔



지역주민들과 함께, 350ppm 캠페인



유동인구가 많고 전력소모가 가장 큰 곳을 찾아라!

수도의 거대 상점에서 350ppm을 외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7월에 예정된 350ppm Campaign 활동들

1) Moratuwa 지역의 한 교회의 청년부, 청소년부를 만나서 350ppm Campaign에 대한 워크숍과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함

2) Mt. Lavinia 지역의 Colleger에서 350ppm Campaign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옴! 그 Colleger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Go Green 캠페인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함



아...

350ppm.....

YMCA Flag Day

_ Flag Day 는

위대한 설립자 Sir George Williams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날로 YMCA에서 일년에 한 번씩 기금을 모으는 행사를 함께한다. 모아진 돈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Moratuwa YMCA에서는 6월 16일 하루 동안 진행하였고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Colombo YMCA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모금행사를 진행하였다.



_ Sir George Williams 는

1821년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20살이 되던 해에 직물거래상 보조가 되어 도시로 옮겨간다. 그곳에서 진실된 신자가 된 그는 1844년 6월 6일 그의 동료들과 최초의 YMCA를 조직하게 된다. 이후 그들의 이념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게 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외에도 그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환경 개선과 그의 수익의 2/3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공로로 영국의 국가영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_ 우리는

30여명의 Children's club 어린이들과 5명의 Youth club 회원, 두 명의 Committee 위원 그리고 세분의 Children's club 어머니들과 4시간 가량을 함께 하였다. 4개의 조로 나누어서 기차역, 상점가 등을 돌면서 모금행사를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기부를 해주는 점이 놀라웠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설명이 제대로 되고 모금을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로 갈수록 어린이들간의 경쟁으로 넘어가서 무리한 모금운동을 하게 된 점이 마음에 걸렸다.

* 이 글은 Colombo YMCA에서 나누어준 전단을 바탕으로 만들었음



한국어 교실



기 존의 한국어 클래스는 6기 이후로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어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이 TOPIK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듣는데 라온아띠가 가르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모라투와 YMCA에서는 한국어 전문 강사를 모셔와 상업 클래스를 연다고 했었고 유료 한국어 클래스와 무료 한국어 클래스가 동시에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라온아띠 한국어 클래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차일피일 유료 한국어 클래스가 연기되었고 결국 유료 한국어 클래스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야흐로 6 월. 우리는 이사회회의에서 라온아띠 한국어 클래스를 열고 싶다는 건의를 하였고 라온아띠 한국어 클래스는 다시 열게 되었다. 하지만 홍보의 부족이었을까 . 학생의 수는 유스멤버미란 단 한 명이였다. 클래스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민망하였지만 우리는 클래스를 계속 진행하였다. 2 주째 단 한명의 학생이 있었고 유스클럽 회장 수데쉬의 도움과 아띠들의 홍보 덕택에 3 주째에는 4 명의 학생이 더 와주었다. 4 주째에는 기쁘게도 8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라온아띠 한국어 클래스 기획초기부터 시험대비반이 아니라 기초회화반을 목적으로 클래스를 오픈하였지만 7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기 원했다. 우리는 기존에 유료 클래스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없었기에 시험대비반을 생각하지 않았고 남은 기간이 2 달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 한국어 시험 대비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에 찾아온 학생들은 10 월에 있을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하여 한국에 일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였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8 월까지 남은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 학생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곳 청년들에게 10 월에 있을 한국어 시험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기에 무턱대고 우리가 시험통과를 자신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현지 유료 한국어 클래스가 비싸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학생들이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3 달이라는 기간동안 정확한 계획도 없이 미루어 지기만한 현지 YMCA 일처리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일이었다.

결국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유료 한국어 클래스를 권하고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시험 유형이나 질문을 바탕으로 보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한국어 클래스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나의 나라에서 마주쳤던 낯선 청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솔직히 나의 학교와 집에서 마주한 그 낯선 이들이 그저 피하고 싶었고 때로는 거부하게도 느껴지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주하게 낯선 이들은 꿈과 열정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들이였다. 나의 찌푸린 눈빛과 비틀어진 시선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하던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질 수 있길 바란다.



내 친구 아요미

-키르
글

모라투와 YMCA 에는 한 마리의 개가 있다.

개의 이름은 아요미.

먼 나라까지 와서 사람도 아니고 개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별나다 싶지만 나에게 있어서 추억이 많아서이고 또 애정이 많기도 하여서이다.

아요미는 나뿐만 아니라 라온아띠와 함께한 추억이 많은 개다.

지난 기수 사진 속에서 발견하는 아요미는 다른 아띠들과도 행복하게 지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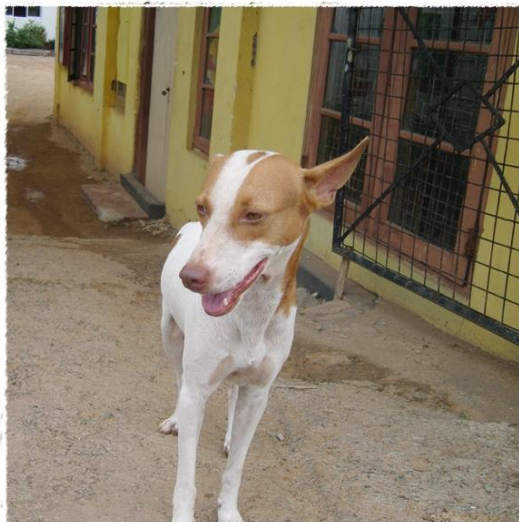
사실 아요미는 평범한 개다. 그리 특별하다 싶은 것도 사실 없다.

그럼 이 개를 왜 좋아하게 된 걸까? 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없이 축 처져있는 모습이 붙짱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이나마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미소 짓게도 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내가 이곳에서 힘들거나 지친 순간에도 함께 하여서 이다. 더딘 하루에 멍을 때리기도 하고 때론 속상함에 혼자 건물 구석에라도 쭈그려 있으면 눈치가 있어서인지 다가와 내 옆을 지켜주기도 하였다. 물론 밥을 먹을 때면 모두에게 충견이라도 된 듯 옆을 지키지만 말이다. 그런 날에는 나는 아요미를 붙잡고 다른 이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나 이곳에서 받았던 답답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곤 했다.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는 눈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순간에 아요미는 내 옆을 묵묵히 지켜주곤 했다. 그래서인지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 내 마음이 열리고 의지도 되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수많은 위로나 꾸며진 말이 아니어도 옆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면 누군가와 마음의 열고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지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었던 아요미가 나는 참 고맙다.

아요미의 근황



아요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다. 아요미와 비슷한 생김새를 한 이 개는 얼마 전에 바람이 나 동네의 힘세고 덩치 큰 개에게 가버렸다. 여자친구를 찾으러 싸우다 본진도 못 찾고 돌아온 아요미는 한 동안 내 앞에서 울었다. 끄끙 앓아대던 아요미는 식욕도 잃고 시름시름 야위어 가다 최근에서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요미의 여자친구는 이별한 듯 ? 다시 솔로가 되어 나타났다. 이에 반색하는 아요미와 달리 쌀쌀한 모습을 하는 여자친구와 재회하는 모습은 내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어쨌든 다시 시작된 아요미의 사랑이 변하지 않길 바란다.

그
티이라네..

또 흘러가네
다시 돌아가네..